



지난 7월 10일 광주 평권마을 양림문화공원 운영사무실에서 총괄건축가 박홍근 건축사(우), 설계를 맡은 박중호 건축사(좌), 홍건영 광주디자인진흥원 디자인융합팀장(중앙)을 만났다. 촬영 장소는 운영사무실 옥상 맞은편 난간.

“도시설계 시 건축이 베이스 돼야... 건축사의 역할 한정짓지 마세요”

2017년에 시작된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올해 6월 건축적 측면에선 마무리가 됐다. 총괄건축가로 참여한 박홍근 건축사(주.포유 건축사사무소)와 설계를 맡은 박중호 건축사(유민 건축사사무소)가 느낀 것들이 많았으리라. 지난 7월 10일 광주 평권마을 양림문화공원 운영사무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 마을 재생사업과 건축 간의 관계에 대해 들어보았다.

박중호 건축사는 마을재생사업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역단체, 주민, 건축사 등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고 이를 모으는 과정, 일명 집단지성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끝난 후에도 주민들의 주인의식이랄까 공동체의식이 더 강해지고 이는 향후 마을의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박중호 건축사는 이번 사업이 추진되기 십여 년 전부터 이미 양림동 근대 건축물의 현황과 연혁을 조사해온 인물이다. 광주 시민이면서 양림동 근대건축물의 건축테마투어 담당자이기도 하다. 그가 양림동 공예특화거리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설계를 맡게 된 데에는 이러한 경험들이 바탕이 됐다. 사업을 마무리한 후 마을재생사업에 대한 소감은 어떨까.

마을재생사업은 건축사들 입장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일반 건축물을 설계할 땐 설계와 감리 등 이런 부분들만 고려하면 일이 진행되지만 마을재생사업을 할 때에는 기획 등 도시설계의 전체 업무를 다 생각해야 합니다.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건축사에게는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박홍근 건축사의 조언은 보다 직접적이다. “건축사라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건축적 상황에 대해 궁금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이 있다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도시설계는 건축을 베이스로 시행돼야 합니다. 건축사들의 업무는 설계나 감리 등의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사의 역할을 건축물에 한정 짓지 말고 마을과 도시로 그 폭을 확장한다면, 좋은 공간을 향유하는 것이 건축사의 역할이라고 관점을 확대한다면, 건축사의 일은 앞으로 틀림없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글 이유리 기자 · 사진 장영호 기자